

# 齒協 30年史

第1次 資料 蒐集草稿

## 資料 編 (10)

齒協 歷史 編纂 委員會 提供

◇…… 朝鮮齒科醫師會 第4回 定期總會는(1949) 5月 29日 서울齒大講堂에서 盛大히 開催되었……◇  
 ◇……다.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된 後 처음 열리는 總會인만큼 會場 正面에 걸려 있는 太極旗가……◇  
 ◇……加一層 光採롭고 南山에 우거진 綠陰은 맑은 하늘아래 춤추면서 薰風을 보내주어 뜻깊은……◇  
 ◇……이날을 祝福해 주었다. ……◇  
 ◇……參席者의 가슴마다 歡喜가 鼓動하는 가운데 드높이 부르는 愛國歌도 感激의이었거니와……◇  
 ◇……討議事項中 特히 豫算審議에 있어서 會員每人當 1千 5百圓의 會費를 2千圓(昨年度6百圓)……◇  
 ◇……으로 增額하여 百餘萬圓의 豫算을 通過시킨 場面은 建設의 朝齒의 象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처럼 熾烈하던 分裂의 過去를 想起할 때 눈물겨운 劇의 瞬間이었다. ……◇  
 ◇…… 그렇다. 오늘 總會席上의 鬭爭은 向上을 爲한 發展을 爲한 아름다운 鬭爭이다. 그의 이……◇  
 ◇……름도 <大韓齒科醫師會>로 改稱하게 되었다. 새나라의 새이름으로 새마음으로 國民保健……◇  
 ◇……을 爲하여 싸우려는 尖兵 齒科醫師에게 榮光 있으라. 民族的으로 國家的으로 그 將來를……◇  
 ◇……爲하여 醫學의 眞理를 探求하고 追求하면서 醫療制度改革(醫齒一元化)을 부르짖는 齒科醫……◇  
 ◇……師에게 成功을 주라. 世界的 齒科醫學水準을 向하여 前進하는 大韓齒科醫師會 萬歲!! ……◇

朝鮮齒科醫師會 第4回 定期總會 狀況 및 會順, 出席者 名單은 다음과 같다.

▲ 會順 = 開會, 代議員點名, 國旗拜禮, 愛國歌奉唱, 殉國先烈에 對한 默念, 開會辭, 來賓祝辭, 各部報告, 臨時執行部選舉, 討議事項 (가) 1949年度 豫算案審議 (나) 會則一部修正의件 (다) 齒科醫療制度改革의件 (라) 機材配給에 關한件 (마) 共他事項, 閉會辭, 萬歲三唱, 閉會.

▲ 出席者(無順)來賓 = 社會部次官 崔昌順, 大韓保健聯合會長 尹日善, 社會部保健局長 朴柱乘, 大韓藥劑師會長 金一泳, 產婆會長 林英淑, 社會部齒醫務係長 律丙瑞, 朝鮮齒科機材株式會社社長 李龍基.

▲ 委員長 金溶禧, 副委員長 申仁澈, 同林澤龍, 總務部 金載天, 李聖民, 財務部 李東奐, 李雲經, 資材部 崔義鍾, 李迪柱, 調查部 金鍾玉, 學術部 金文祚, 金永昌

▲ 中央委員 朴明銀, 趙昊衍, 文贊玉, 李有慶, 林澤龍,

金昌圭, 崔海雲, 林榮均

### ▲ 代議員

(慶北) 崔海雲, 郭學台, 李鍾奭, 李源大, 姜信文

(慶南) 金昌圭, 高相穆, 梁敬煥

(全北) 林澤龍, 劉時仲, 崔希烈, 鄭潤鉉

(全南) 金性度, 林俊鎬, 金浚坤

(忠南) 朴成實, 金鍾善

(京畿) 林榮均

(서울) 李順伊, 趙洪淵, 朴泰植, 金漢慶, 宋昌成,

李昌柱, 文昌周, 金岐宇, 吳鉉敏, 丁奎采,

崔嶸九, 吳道興, 申鉉億, 金然浩, 張明鎮,

李東燮, 朴鍾文, 李鳳珪, 趙鋪起

### ▲ 忠北, 江原(缺席)

上午 10時, 開會의 電鈴이 울려지자 一同靜肅한 가운데 金文祚學術部委員이 <中央委員 및 代議員點名>을 하고 總會成立을 宣言한 다음 國旗拜禮, 愛國歌奉唱,

殉國先烈에 對한 默念등 嚴肅한 國民儀禮에 이어 金委員長의 開會辭, 崔昌順次官, 尹日善會長, 金一泳會長 등의 祝辭.

▲ 各部報告 = 學術部 金文祚, 資材部 崔義鍾, 調查部 金鍾玉, 財務部 李東奐 등 報告에 對한 質疑應答에 들어간다.

#### 叛亂地同業者救濟金에 對하여

金性度(全南) = 決算報告를 보건데 差引殘金이 4萬 5千餘圓이니 이것을 叛亂地同業者に 對한 慰問金에 充當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닌가.

李財務部委員 = 그 當時는 그 殘金이 없었다.

崔海雲(慶北) = 麗水두분에 對한 救濟金으로 慶北에서는 同志愛로서 每人當 5百圓式 釀出하여 朝齒에 傳達하였다. 朝齒로서도 差引殘金이 있으니 總會決議로 救濟金을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서울側 拍手).

金昌圭(慶南), 朴成實(忠南), 林澤龍(全北) 등으로 부터 道齒科醫師會, 總會決議로서 救濟金을 每人當 5百圓式 收金中에 있다고 報告.

林澤龍(全北) = 常務委員會에 一任하여 差引殘金中 支出限度內에서 慰問하자.

金委員長 = 勿論 그것도 좋으나 各道會員이 보내주는 것을 朝齒가 一括해서 傳達하니 새삼스럽게 朝齒가 別途로 할 必要는 없을 것 같다. 그것보다 各道에서 救濟金을 빨리 보내주기 바란다.

結局 各道및 市齒醫會에서 6月末日까지 救濟金을 朝齒에 納入하자는 金昌圭案을 採擇하였다.

#### <朝鮮齒界>에 對하여

朴鍾文(서울) = 學術部에 機關紙費가 8萬 5千 5百圓이고 印刷費가 別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具體的 說明을 바란다.

李財務部委員 = 機關紙費는 <朝鮮齒界> 發刊을 말함이고 印刷費는 學會準備印刷物의 費用이다.

金委員長 = 機關紙費는 純全히 <朝鮮齒界> 3回發刊費이며 人件費는 없다.

#### 其他諸問題에 對하여

趙鋪起(서울) = 좀더 詳細히 財務部報告를 바란다.

金昌圭(慶南) = 決算報告書를 各自 가지고 있으니 그럴 必要없다고 생각한다.

林學均(京畿) = 나도 같은 意見이다.

金然浩(서울) = 昨年度豫算은 얼마나 세웠는데 決算이 이렇게 되었다고 詳細히 說明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未收入金은 얼마나 되며 總務部雜費는 왜 이렇게 많은지? 알고저 한다.

金委員長 = 未收金은 15萬 2千 6百圓이며 雜費가 많은 것은 朝齒에 割當된 保健部獨立贊助金이 3萬圓, 1年間

朝齒의 심부름한 사람에게 1萬圓, 社會部에 낸 金配給 建議文 프린트代 1千 2百 50圓, 其後 또 關係當局에 낸 金配給陳情書 다이프代 4千圓, 醫藥新報主催, 蹴球大會 援助金 3千圓 등이 包含되어 그렇다.

林俊鎭(全南) = 우리道에 割當된 保健費獨立贊助金 1萬圓을 支拂했는데 決算面에 없으니 어찌된 일인가.

金委員長 = 各道에 割當된 贊助金을 朝齒로 보내온 것도 있고 保健部獨立促進會로 直接 보내온 것도 있었으므로 別途 取扱했다. 麗水同業者に 對한 救濟金도 亦是 別途取扱하고 있다.

文箕玉中央委員 = 齒科醫師인 만큼 會計에는 門外漢이니 答辯이 間或模糊하더라도 그點을 諒解하고 要點만 質疑하여 一寫千里로 進行해 주기 바란다.

崔海雲(慶北) = 贊成이다. 質疑는 그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林澤龍(全北) = 機材會社의 配給品을 小賣擔當業者가 緊要한 세멘트 등을 빼고 不要品만 配給한 일이 있는데 對한 制裁가 있는가.

金委員長 = 그것은 機材件에서 討議하자.

#### 臨時執行部選舉

議長에 林澤龍을 金委員長이 推薦, 書記에 李聖民, 崔義鍾을 林議長이 推薦하여 各各 就任하고 12時 드디어 討議事項에 들어가다.

#### ▲ 討議事項

가. 1949年度 豫算等案審議件이 上程되자 서울側 趙鋪起, 金然浩, 趙洪淵 등 連달아 <우선 各項目을 詳細히 說明하라. 會費가 1千 5百圓으로 增額된 것과 昨年度 未收金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說明하라. 돈보다 精神으로 일할 생각을 하라>고 會費增額 反對氣勢가 보이는데 對해 <먼저 支出을 檢討한 後 收入을 作定하자>고 金鍾玉勸諭, 再講이 있어서 採擇, 即時 支出部豫算을 討議하다.

① 總務部豫算總額 34萬 7千 5百圓에 對하여 金總務 <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적어도 이것쯤은 가져야 總務部일을 볼 수 있는 것이니 通過시켜 주기 바란다 >고 細細히 支出各項目을 說明.

朴泰植(서울) = 職員은 어떠한 것인가.

金總務部委員 = 書記 1名, 使喚 1各이다.

林學均(京畿) = 委員長의 交際費가 豫算編成에 빠진 것 같은데? (笑聲)

李財務部委員 = 豫備金을 適宜 充當코저 한다.

② 財務部豫算總額 1萬 5千圓에 對하여 李財務委員이나 各代議員 너무나 少額이라 어이가 없는지 質疑 없이 默認態度.

③ 學術部豫算總額 32萬 9千 5百圓 對하여 金學術委

委員說明.

朴鍾文(서울)=機關紙의 形態는 어떠한 것이며 發刊回數 또는 編輯의 責任所在와 取材重點은 學術이나 報道나.

金學術部委員=形態는 從來와 같이 新聞紙形式이며 年 6回發刊으로 1回發刊費4萬圓이다. 編輯責任은 今年부터 學術部에 있으며 取材는 主로 消息을 傳하는데 있다.

李昌柱(서울)=宣傳費 5萬圓은?

金學術部委員=口腔衛生強調週間的 宣傳費로서 라디오放送, 講演, 其他行事的 費用이다.

林俊鎬(全南)=機關紙發刊費가 昨年은 8萬 5千 5百圓인데 今年度에 24萬圓으로 된것은 많은差가 있지않은가  
金學術部委員=昨年은 3回發刊했고, 今年은 6回이며 發刊費가 引上된 關係도 있다.

李東燮(서울)=豫算을 더해서라도 機關紙를 年12回發刊해 주기바란다.

金學術部委員=대단히 좋은 생각이다.

④ 學會部豫算總額 13萬 5千 5百圓에 對하여 朴學會長은 <어제 學會에서 學會誌를 年 4回 發刊하자고 決議한바 있는데 그 腹案은 1. 總會及講演會費 3萬 5千 5百圓, 2. 學會誌 4回發刊費 40萬圓, 3. 通信費 3萬 5千圓, 4. 消耗品費 5萬圓, 5. 雜費 5千圓 등 總額 52萬 5千 5百圓의 豫算이니 여러분이 討議 決定해 주기 바란다>고 朝齒豫算보다 39萬圓이나 많은 豫算案을 提出하였다.

金昌圭(慶南)=나는 恒常 學會誌를 必要性을 느낀다 그러나 經費關係도 있으니 年4회를 年2回쯤으로 했으면 좋을까 하는데 朴學會長意見은?

朴學會長=年2回도 當分間은 無難하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公報處에 定期刊物許可手續을 하자며 體面上 적어도 年 4회는 發刊한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年 4회든지 年 2회든지 여러분이 決定해주는 데 따라 일을 하겠다.

林榮均(京畿)=學會誌에 重點을 두느냐 생각할때亦是 學會誌에 重點을 두어 機關紙費 24萬圓을 削減하여 學會誌費에 充當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朴鍾文(서울)=京畿道代表말에 贊成이다. 機關紙費를 學會誌費로 轉換하자.

崔海雲(慶北)=어제 學會를 보았지만 그다지 興味를 느끼지 못하였다. 勿論 學會誌를 많이 發刊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좋은 原稿가 그렇게 있을지도 생각할 必要가 있다. 學術도 좋으나 診療室에서 餘暇있을 때 機關紙를 通하여 同志들의 消息을 듣는 것은 더욱 반가운 일이다. 餘裕만 있다면 機關紙를 月 1回 發刊케 하고

싶다. 그러나 그러한 豫算이 없으니 機關紙는 豫定대로 年 6回 發刊하고 學會誌에 對해서는 別途로 5百圓을 徵收하여 兩쪽을 살피자. (拍手)

⑤ 資材部豫算總額 1萬 5千圓.

⑥ 調查部豫算總額 9千 5百圓.

⑦ 特別研究部豫算總額 1萬 2千圓.

⑧ 豫備金 2萬 7千 24圓 8錢등은 一瀉千里로 可決.

또다시 會費問題로 論戰이 展開되어 地方側林榮均, 朴成實, 崔海雲, 金性度등은 2千圓會費를 主張하고 서울側 金然浩, 趙洪淵, 朴鍾文, 趙鎬起등은 會費增額을 反對하여 議場이 騷亂한가운데 結局 支出部承認할 것을 可決하고 下午 1時 35分 議長이 休會宣言으로 中食, 下午 2時續開하여 收入部審議에 들어가자 서울側 <未收金 15萬餘圓을 收入部에 計上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缺損으로 認定할 것인가>에 對해 金委員長이 <各道の 會員名簿가 提出되지 않아서 確實한 會員數를 알 수 없기때문에 未收金을 豫算에 計上치 못하였다>하니

金然浩(서울)=이會는 各道代議員으로 構成되었을 것인데 會員數를 모른다니 代議員은 무엇을 根據는 選出하였는가. 이렇게 되면 代議員의 資格審査를 먼저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追窮한즉 서울側이 이에 呼應하면서 또다시 未收金을 어떻게 할것이나고 肉迫하여 物議騷然해지자

李雲經財務委員=서울代議員이 未收金을 가지고 왜, 그렇게 말이 많으나. 未收金은 서울齒科醫師會의 未收金인 것이다.

라고 頂門의 一針, 結局 未收金을 豫算에 計上키로 했다.

崔海雲(慶北)=會費를 2千圓으로 하되 其中 5百圓은 學會에 보낼것을 動議한다. 會費徵收가 困難하리라는 말도 있으나 會費 未納者에게는 藥品 機材등 配給을 停止시키면 되지 않는가.

朴成實(忠南)=慶北動議에 再請이다.

金然浩(서울)=會費는 千圓으로 하고 朝齒會費는 從來와 같이 6百圓으로 할것을 改議한다.

趙洪淵(서울)=改議에 再請이다.

林議長=그改議는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一讀會에서 通過된 支出部를 無視한 改議인 까닭이다.

하니 金然浩, 趙洪淵등은 <支出部에 對한 質疑는 했으며 承認한 일이 없었다. 改議를 왜 안받는가> 며들 었으나 議長, 끝내 默殺하고 趙吳衍中央委員은 <會費 2千圓에 三請이다>하니

林議長=그러면 動議에 對한 可否를 묻겠다.

고 嚴肅히宣言. 舉手結果 可18, 否 0으로 結局은 收入部(會費每人當 2千圓) 豫算案 通過에 拍手.

이어서 崔海雲 <지금 通過된 收入에 對한 支出의 數字的 計上은 常務委員會에 一任하자>는 動議에 金昌圭 再請하여 滿場一致로 可決하니 是는 下午 2時 50分 最難關의 豫算案이 原案보다 增額되어 2時間 50分만에 通過되었다.

#### 나. 會則一部修正의 件

金文祚로부터 會名改稱 其他에 關한 修正條項의 提案 理由說明이 끝나자

▲ 會名<朝鮮>을 <大韓>으로 할것을 趙洪淵 動議하여 崔海雲 再請으로 拍手可決.

▲ 總會期日을 一般醫學會와 交流하기 爲하여 來年부터 <10月>로 定하자는 提案에 會計年度關係로 論難이 있었으나 金委員長의 <4, 5個月間 豫算없는 眞空狀態는 立替를 해서라도 끌고나가겠다>는 斷言에 金昌圭 動議, 崔海雲 再請으로 <來年부터 總會를 10월에 開催할 것>을 可決.

▲ 診療科名 <齒科>를 <口腔科>로 改稱하자는 提案에 反對도 있었으나 結局 趙昊衍 動議에 趙洪淵 再請으로 可決. 이어서 <口腔科>로 可決된 것을 社會部長官 서울齒大學長에 建議할 것도 可決.

#### 다. 齒科醫療制度改革의 件

特別研究委員會 代表委員 趙昊衍으로부터 科學課程表를 提示, 이렇게 教育方針을 改編한다면 醫齒一元 實現은 容易할 것이라고 詳細한 說明으로 齒科醫療制度改革性을 力說한다음 醫齒一元促進會長 申仁澈은 <其間 身病으로 村에 가 있다가 決意하여 서울로 돌아왔다. 醫齒一元化運動이 停頓된 點에 對해서는 未安하나 앞으로 積極的으로 努力하겠으니 여러분의 協調를 바란다>는 말에 拍手.

#### 라. 機材配給에 關한 件

李適柱 資財部委員으로부터 麻醉用注射藥外數種의 材料를 近間 配給하게 되었다고 報告.

劉時仲(全北)=金配給交涉狀況은 어떻게 되었는가. 日政에 金을 回收하면서도 醫療用金配給만은 있었는데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된 오늘날 金配給이 없다는 것은 理解할 수 없다. 金이 奢侈品으로 또는 輸出되는 것을 放任하고 醫療用金配給을 주지않는 施策에 우리들 齒科醫師는 總罷業의 決意까지 가지고 鬭爭해야 할 것이다.

라는 熱辯에 金委員長, 徐齒醫務係長으로부터 陳情書를 두번낸 것, 社會部長官은 양해하나 財務部長官이

認識이 없는것 같 다는 것. 財務部, 企劃處, 產金課, 朝鮮銀 등 4者가 金買入價格을 決定코져 會合했을때 大韓民國政府의 金保有量이 5百kg밖에 없으므로 醫療用金配給을 一時中止 할 것을 作定하여 結局 2月 28日 國務會議에서 採擇公布하게 된것을 其後 財務部次官 訪問時 비로소 알았다는 것. 金配給案을 國會에 上程하도록 總會 決議로 請願書를 國會文教社會分科委員會에 提出하게 되었다는 것等 詳細한 報告가 있은後 <請願書>를 提出하기로 하고 請願書에 各道代表가 捺印.

#### 마. 其他事項

▲ 無資格者取締建議를 崔海雲 主張하여 拍手로 可決 徐齒醫務係長 앞으로 適切히 醫療令에 處罰條項을 넣도록 하겠다는 附言이 있었다.

▲ 口腔衛生強調週間에 對한 崔海雲 質疑에 徐齒醫務係長 <豫算이 없어서 單色으로 印刷한 宣傳포스터가 各齒科醫院에 配付될 것이며 今年에는 各國民學校 訓導에게도 口腔衛生에 對한 教材를 印刷하여 提供했다>고 應答.

▲ 副委員長1名辭任에 對한 趙鋪起 質疑에 <申仁澈副會長이 地方으로 移居할 때 辭表를 갖는데 다시 서울로 왔으니 辭表를 撤回시킬 생각이다>라그 金委員長 應答 林議長도 <勿論 撤回해야 할것이라>고 同意.

▲ 限地齒科醫師脫退에 對한 趙鋪起 質疑에 金昌圭 <慶南에서 限地齒科醫師들이 脫退했는데 最近 口頭 혹은 書類로 脫退取消의 通告가 있었다. 書類未備로 아직 脫退取消이 되지 않았으나 不日內로 復舊될 것이라>고 應答.

▲ 齒科機材入荷與否의 價格에 對한 崔海雲 質疑에 入荷된 ECA物資中에 齒科機材도 있다는데 그 價格換算率이 1弗對 4百 80圓 50錢이라 하여 받지 못하고 있으며 其後 都賣業者들이 1弗對 2百圓程度로 交渉中이다. 2百圓이라도 從來의 換算率 1弗對 80圓에 比하여 2倍半이 된다고 朝鮮齒科機材(株) 社長李龍基 應答.

끝으로 副委員長 林澤龍의 閉會辭에 이어 萬歲三唱, 下午 4時 40分 閉會後 新綠이 우거진 大學病院 後園에서 懇親宴이 있었다.

그리고 今般 學會와 總會 贊助金으로 朝鮮齒科機材株株會社, 라이온 齒磨粉舍名會社에서 各各 5萬圓式 寄贈이 있어 各會員으로 하여금 感謝를 느끼게 했다.